

# 지리교육에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개발교육의 방향 연구

이태주\* · 김다원\*\*

## Study o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in Geography Education

Tae Joo Lee\* · Da Won Kim\*\*

**요약** :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그 인접국가 및 국제사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차원에서의 국제협력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개인중심, 국가중심의 사고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개발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외 개발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앞으로 학교 교육에서의 개발교육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시민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리교육에서의 개발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제개발협력교육의 용어사용, 접근방법, 교육 내용, 학교교육으로의 연계 방향을 중심으로 개발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개발교육, 세계교육, 지리교육, 세계시민의식

**Abstract** : With deepening globalization, various problems happening all over the world have not been limited to a country any more, but have had an influence over neighbor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al with these problems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getting important. Thus, over the existing individual- and state-centered thought, the alternative education is required to teach how to make a sustainable society and what to do for living together. In particular, current students are asked to be equipped with proper knowledge and attitude since they are to live as a global citizen beyond the Korean citizen in globalized era.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development education in other countries and in Korea, and it also suggests the use of terminology, approach to teaching, educational contents, and last but not least how to link the regular school curriculum in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Key Words** : development education, global education, geography education, global citizenship

###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한국 정부가 국제화, 세계화를 외치며 1996년 OECD

에 가입한지도 올해로 13년이 되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전부분에 걸쳐 세계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세계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이나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나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국가간, 문화간의 교

본 연구는 2009년도 한성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 한성대학교 교수(Professor, Hansung University), tjlee@hansung.ac.kr

\*\* 까치울중학교 교사(Teacher, Kachiwool Middle School), veritas2@chol.com

류가 증대되면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호연계성 및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구증가와 인구이동, HIV/AIDS, 자원고갈, 빈곤의 양극화, 지구온난화, 테러리즘, 식량부족 등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더 이상 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국제협력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복잡한 원인과 구조, 그리고 긴밀한 상호연계성 및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기에 이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힘들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개인중심, 국가중심의 사고를 넘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즉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국내에서는 1997년부터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을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sup>1)</sup>이 포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평화, 인권, 환경, 다문화 등 국제이슈 각각의 영역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개발 교육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아태교육원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은 교사 연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촌의 빈곤문제, 개발도상국의 발전문제, 아동 노동 문제, 인권문제, 여성 노동 문제, 지속가능개발 등 국제개발협력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이슈들과 이러한 문제 해결에의 실천과 참여의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개발교육은 국제사회에서 세계 학습(Global learning),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 세계 교육(Global education), 세계시민교육(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등의 이름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개발교육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복잡한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해, 또한 이러한 이슈들을 집합적으로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상황 이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도국과 선진국 등의 국제 사회 협력 내용을 담고 있어 경쟁보다는 협력을 필요로 하는 21세기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특별히 현재의 초·중·고등학생들은 앞으로 세계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국가를 벗어나 지구시민,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시대적으로 요청받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식 및 태도,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뛰어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성 존중 및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세계시민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영국의 개발교육협회(DEA: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에서 한 연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DEA, 2008), 지구촌 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학습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글로벌 이슈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히 지금의 국제 사회는 지구촌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새천년개발목표를 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원조의 효과성 및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펼치는 등 어느 때 보다 국제개발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는 낮은 편에 속한다. 이것은 2005년 국무조정실이 국정홍보처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 발전 및 사회복지 증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인식과 관련하여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국무조정실, 2005),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외 원조에 대한 내용 인지도가 3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08년 말 한국개발전략연구소가 외교부로부터 '개발 원조에 대한 대국민 여론 조사 및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 연구' 용역을 받아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Lee, 2009, 87), ODA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51%로 절반을 겨우 넘었으며, 한국의 ODA규모에 대해서 '현 수준이 적절하다'(44%)와 '현 수준을 유지해야한다'(53.4%)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난 것에서도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및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sup>2)</sup> 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낮은 대국민 인지도가 향후 ODA 증가를 통한 국제개발원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인지 제고의 일환으로 정부 및 개발 NGO들 사이에서 개발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21세기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으로서 지구촌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주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개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몇몇 개발 NGO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교육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개발학'이라는 이름하에 인류학, 경제학, 국제관계, 정치학, 사회학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과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로서는 지리 교육의 역할이 컸다. 지리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측면에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 제고해 줄 수 있는 개발교육을 잘 실행할 수 있는 핵심 교과이다. 그간 지리 교육은 사회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데 지리교육에서의 개발교육은 앞으로 지리를 통한 삶의 질 제고 및 실용 지리로서의 경쟁력을 갖춰가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개발교육의 현황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이제 막 개발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개발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언함으로써 지리 교육에서 개발교육이 보다 체계적인 틀 속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개발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찾기를 목적으로 하며 특히 세계시민교육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지리교육에서 개발교육의 가능성과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강조점을 둔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발교육의 개념과 흐름을 살펴보고 일찍이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개발교육 현황과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대상 국가들로는 유럽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ODA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핀란드를 선정하였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나라들에서의 개발교육 현황 및 역사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교육과정에서의 개발교육 현황,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과 시민 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발교육 현황과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개발교육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면서 개발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리교육에서의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개발교육은 세계교육,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개발교육 등의 다양한 용어와 혼용하여 행해지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NGO기관들과 다학문의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구체적인 교과서 및 NGO기관들의 교육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개발교육 현황 분석은 본 연구자의 능력부족으로 하지 못하여 안타깝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두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대신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 대두와 우리나라의 ODA공여국으로서의 지위 상승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인지교육의 필요성 제기에 발맞추어 학교 교육에서 개발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교과영역으로 지리교육에서의 개발교육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를 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1차적으로 세계시민, 개발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인권교육 등 관련 주제에 대한 문헌 연구 및 OECD, World Bank, European Union, Oxfam, DEA 등의 기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교육 관련 문헌 연구, 웹사이트 방문, 관련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개발교육 관련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내 개발교육 관련 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관련 문헌 정보 및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개발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주요 단체를 방문하여 교육담당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를 위해 방문한 기관은 굿네이

버스,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 YMCA 전국연맹, 기아대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태교육원 총 7기관이다. 이러한 국내 기관 선정은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교사 및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교육의 내용을 일부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개발교육 차원에서 교사 연수와 유네스코 협동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태교육원은 세계화, 인류보편적 가치, 세계체제, 문화다양성, 지속가능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이해교육 교사 연수를 매년 여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 YMCA 전국연맹, 기아대책 기관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 차원에서 지구촌 빈곤 지역의 실상과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실상을 보여주고 이들을 돕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기관들이다.

## 2. 국제 사회에서의 개발교육 역사와 현황

### 1) 국제 사회에서의 개발교육 배경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엔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으로 1946년 유네스코(UNESCO)를 창립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국제이해교육을 도입·강화할 것을 결의하였다. 1974년 제18차 총회에서는 국제이해교육,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적 자유에 관련된 교육 권고(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on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를 채택하면서, 국제이해교육의 방향을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 민중의 권리와 평등권 및 자결권,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화, 개발도상국의 원조, 문맹·질병·기아에 대한 투쟁, 환경오염과 자연자원 문제 등 폭넓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제이해교육은 하나의 접근법을 갖고 동일한 내용을 가르

치는 것이 아닌, 평화나 인권 발전과 같은 세계 보편적 가치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세계적 빈곤이나 질병, 환경 등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외국의 역사나 사회, 인종, 종교, 습관 등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익히는 교육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해되고 실시되면서 개발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아 왔다.

본격적인 개발교육은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처음 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의에서 전 세계 개발과 환경 NGO들이 모여 진행한 NGO 세계포럼에서 개발교육과 환경교육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며,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지역적·국제적 문제, 그리고 공동의 방법이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GENE, 2003, 13-14). 이후 국제 사회에서는 개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와 관련한 대중 인지 제고 및 교육에 관한 관심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2000년대 들어 국제 사회에서 개도국의 빈곤 감소를 위한 MDGs(새천년개발목표)가 선언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특별히 공여국을 중심으로 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적 지지 확보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개발협력 이슈 및 MDGs와 관련한 대국민 인지 제고의 한 방편으로 개발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와 동시에 세계화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서 심화되면서, 지구촌의 문제 및 그 문제들 사이의 상호연계성과 관련한, 즉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되었는데(OECD Development Center, 2008, 10)<sup>3)</sup>, 이것은 주로 교육 과정에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을 녹아들게 하는 것, 세계적 이슈를 알게 하는 것(Global learning), 능동적인 세계시민(Global citizenship)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의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적 이슈, 세계적 관점, 능동적 시민을 포함하면서 개발교육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 2) 국제 사회의 개발교육 논의 흐름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2000년 189개국 정상들이 모여 전 세계 빈곤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을 목적으로 UN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와, 2005년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여국들 사이에서 합의한 ‘원조의 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계기로 OECD 회원국 사이에서 국제 개발이슈에 대해 시민들의 인지 제고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특히 개발협력분야에서 원조 효과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그동안 공여국에서 대국민을 상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된 인지 제고 활동에 대한 효과 및 영향에 대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개발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개발에 대한 인지 제고 및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여국 사이에서 증대되면서 2007년 독일의 경제협력개발부(German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의 주최로 ‘개발 정보교환, 옹호 그리고 교육: 평가 개선을 위한 조언 및 방법(Development Communication, Advocacy and Education: Tips and Tools for Improving Evaluation)’이라는 주제로 비공식 OECD 전문가 워크숍이 진행되기도 하였다.<sup>4)</sup> 여기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OECD는 공여국 사이에서 개발 및 글로벌 이슈

에 대한 인지 제고 활동을 개발정보 및 정보교환(development information/communication), 옹호활동 및 캠페인(advocacy and campaigning), 개발과 세계 교육(development and global education) 3가지로 나누어 평가시 참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Table 1).

개발정보/정보교환은 개발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왜 개발협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개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정보제공을 통해 개발협력에 대한 책임성과 개혁에 대한 태도 변화, 그리고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옹호활동은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발교육은 교육 활동을 통해서 지구촌 사회의 공정성, 상호 의존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에 대한 가치의 내면화와 태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세 영역에서의 중점 활동 전개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 제고 및 지속적인 참여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개발교육과 관련한 활동은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U는 1990년대 중반 유럽의회 의 남북센터(the North-South Center of the Council of Europe)를 중심으로 세계교육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997년 세계교육을 정치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 세계교육 현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1년 개발협력을 담당하고 있

Table 1. Information/communication, advocacy, development/global education.  
정보/의사소통, 옹호활동, 개발/세계교육.

	Information/Communication	Advocacy	Development/Global education
Goals	Reducing knowledge difference	Policy change	Necessity of new education about the interdependent world
Objec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nsparency</li> <li>• Responsibility</li> <li>• Acquisition of support about reform</li> <li>• Change of behavio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dvocacy/Campaign activity for policy change</li> <li>• Citizen participation for social justice and chang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erstanding social justice and living together in interdependent world</li> </ul>
Main Activity	Provision of information	Activities of several campaign	Education

Resource: OECD Development Center, 2008, 17

는 EU장관들이 모여 개발협력에 관한 개발교육 및 유럽인들의 인지 제고에 관한 의회결의를 채택하고, 2005년 개발교육 및 인지 제고의 기여라는 주제로 개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도 할 만큼 EU국가들은 개발교육의 질적·양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개발에 대한 합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교육 및 인지 제고는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생 동안 국제개발 이슈 및 이것이 지역적·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하며, 상호의존적이고 변화해가는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주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도와주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개발교육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들을 견지하면서 능동적 시민교육, 인종차별 교육,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교육, 성평등 교육, 세계교육, 인권교육, 문화간 이해 및 다문화 이해교육, 참여적 학습 및 행동, 그리고 평화교육과 같이 기존에 유럽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EC, 2005).

유럽연합 내에서 개발교육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는 크게 CONCORD(European NGO Confederation for Relief and Development)와 유럽의회 남북센터(North-South Center of the Council of Europe)가 있

다. 우선 시민사회에서는 CONCORD를 중심으로 CONCORD의 핵심 실무그룹으로 개발교육포럼을 두고 있으며, 3년 단위의 프로젝트로 유럽의 개발 NGO들이 보다 나은 개발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DEEEP<sup>5)</sup>(Development Education Exchanging in Europe Project)와 신흥 유럽 국가 내에서 개발 NGOs가 개발이슈와 관련한 인지 제고 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돕는 TRIALOG<sup>6)</sup>(Development NGOs in the enlarged EU)을 진행하고 있다(Figure 1). 유럽의회를 중심으로는 1989년 유럽의회 장관위원회의 결정으로 1990년 리스본에 남북센터가 설립되어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세계화 시대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지 제고, 의회의 원칙에 따른 연대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협력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남북센터의 도움으로 생겨난 GENE(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은 2001년 개발교육 분야에 대한 지지, 지원, 정책 입안을 책임지는 장관, 기관, 국가 기구들의 네트워크로 유럽 내 개발교육 보급 및 질적 개선을 위한 국가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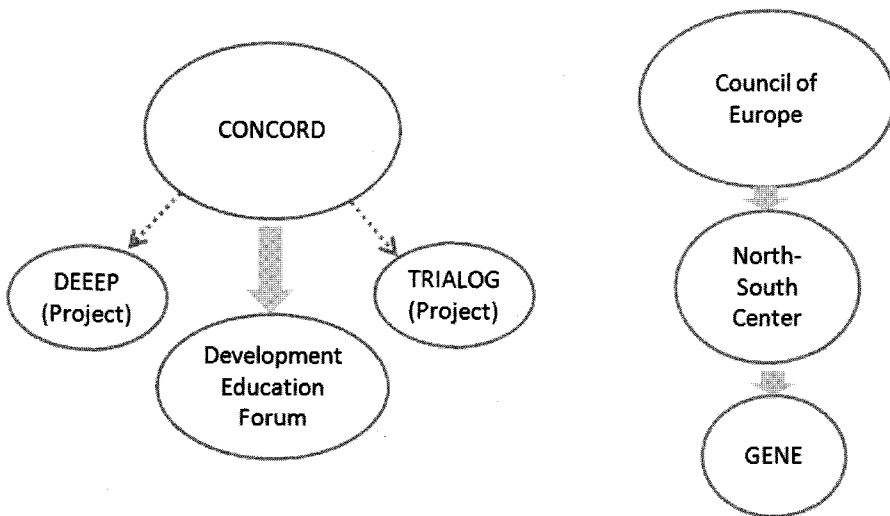


Figure 1. The organization chart of development education institutions in Europe.  
유럽내 개발교육관련 주요 활동 기구 상관도.

### 3) 개발교육의 다양한 관점

개발교육은 아직까지 용어사용이나 내용면에서 학문적으로, 또 국제 사회에서 정확하게 합의된 것은 없다. 우선 개발교육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살펴보면 '개발교육', '세계교육', '세계시민교육'으로 각 나라의 상황 및 이해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신흥 EU국가를 중심으로 개발이슈와 관련해 전통적 시각이 부각되는 개발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세계시민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중요시되는 세계교육내지는 세계시민교육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영국과 같은 경우 개발교육이 국제 변화와 국제 개발과 관련한 핵심적 생각에 직접적으로 공헌한다기보다는 부차적인 목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논쟁이 일면서 개발교육이라는 용어 보다는 세계학습(Global learning) 내지는 세계시민교육이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sup>6)</sup> 스위스 같은 경우는 세계학습이 보다 동적인 면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세계교육보다는 세계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어 사용과 함께 그에 대한 이해 또한 다양한 실정이다(GENE, 2003, 17). 실제 OECD 문건에도 개발교육과 세계교육이 개발/세계교육(Development/Global education)으로 표기되어 함께 사용되고 있다(OECD Development Center, 2008, 9).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발교육의 정의에 대해 조금 더 각 기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유럽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세계교육에 대해서는 2002년 합의된 마스트리히트 선언(Maastricht Declaration : European Strategy Framework for Increasing and Improving Global Education to the Year 2015)에서 합의된 아래의 정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교육은 세상의 현실에 대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며 모두를 위한 세상의 정의, 평등,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일깨우는 교육이다. 세계교육은 개발교육, 인권 교육, 지속가능 교육, 평화와 분쟁예방 교육, 문화간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으로, 시민교육의 세계적 차원이다 (Council of Europe, 2002).

이 정의를 바탕으로 개발교육 보급을 위해 설립된 유럽 내 정부기구들의 네트워크인 GENE은 특별히 개발교육을 이러한 세계교육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sup>8)</sup> 하지만 세계교육이라는 용어자체가 포괄적인 성격을 띠면서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그 포괄성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희석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유럽 내 개발 NGO들은 유럽의회의 세계교육이라는 용어와는 다르게 개발교육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정의<sup>9)</sup>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지구촌 문제 중심의 이슈들에 대해 조금 더 비판적이며 직접적이라 할 수 있다.

개발교육은 연대, 평등, 통합, 그리고 협력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능동적인 학습과정이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구촌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 및 영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제 개발에서의 우선 순위 및 지속가능 인간개발에 대한 기본 인지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참여와 행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 빈곤 퇴치 및 소외에 대항하는데 모든 시민들의 적극 참여 촉진과,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환경 및 인권에 기반을 둔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활발한 개발교육 활동으로 유명한 영국의 Oxfam과 같은 경우는 개발교육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확장시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과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세계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복잡한 세계 문제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 보다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sup>10)</sup> 하지만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개발교육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공여국 정부의 원조 기관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에 대한 인지 제고 활동을 자국 및 기관의 개발협력 활동을 홍보 또는 정보 전달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하며, 정부 정책의 지지를 목적으로 ODA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제고를 위해 ODA교육 등

으로 이해하여 사용하는 곳도 있다. 즉, 아일랜드 개발 교육협회와 세계은행에서의 개발교육은 아래에 제시한 바대로 불균등한 세계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과 현상을 분석하여 문제 해결에의 참여 태도를 기르는데 두고 있다.

개발교육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호의존적이고 평등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인지 제고 및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과정으로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성찰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http://www.ideaonline.ie/>).

개발교육은 국가와 지역 및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복잡한 사회, 경제, 환경적 이슈를 가르치는 것이다(<http://www.worldbank.org/depweb/>).

한편, 유엔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inns, 2002, 268).

개발교육은 개발된 국가 및 개발도상국가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인권, 존엄성, 자립, 사회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개발의 원인, 개발 내용, 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새로운 세계 경제 및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가는 방법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볼 때 개발교육은 자유, 평등, 정의, 연민, 존중, 나눔과 같은 세계 보편적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개발이슈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 및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Figure 2).

이러한 개발교육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지식 및 이해의 측면, 그리고 가치 및 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 및 이해의 측면에서는 개발교육을 통해 세계화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세계적 상호의존성 및 상호연관성에 대한 이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빈곤, 교육, HIV/AIDS, 성평등, 환경, MDGs와 같은 국제개발협력 이슈,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및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이러한 지식습득과 지구촌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세계적 관점을 통한 통합적 사고,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태도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의식을 형성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Table 2).

즉, 개발교육을 통해 세계화에 따른 상호의존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세계시민으로서 국제적 과제, 특별히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개인 가치관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



Figure 2. Chart of development education. 개발교육의 개념도.



Table 2. Contents of Development education. 개발 교육의 내용 구성.

	Knowledge and Understanding	Values and Attitudes
Cont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li> <li>• Cultural diversity</li> <li>• Development issues</li> <li>• Effort of international community</li> <li>• Sustainable developme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grated thinking through several viewpoints</li> <li>•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li> <li>• Active and participative attitude</li> <li>• Open mind and respecting of diversity</li> <li>• Development of global citizenship</li> <li>• A sense of responsibility as a global citizen based on universal values</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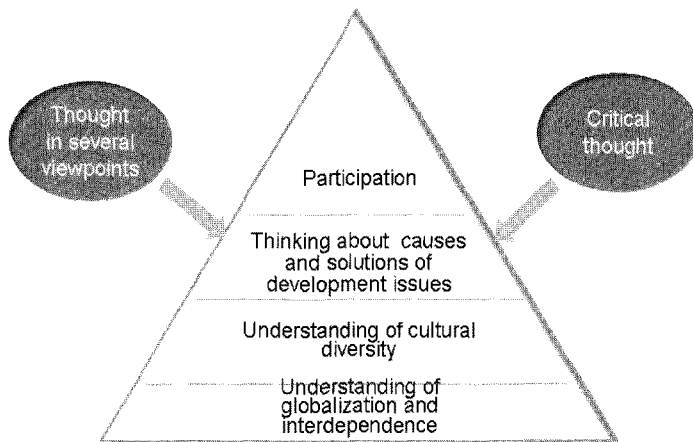


Figure 3. The objectives of development education. 개발교육의 목표.

식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다(Figure 3).

#### 4) 개발교육과 지리 교육

개발은 인간 잠재성의 실현과 자립이다(Binns, 2002, 265). 이러한 인간의 잠재성 실현과 자립을 위해서 인간 복지 수준이 향상되어가고 가난, 비고용, 불평등, 차별, 인권 등의 문제들이 개선되어가는 과정이 개발이다(Seers, 1969, 4). 개발교육은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교육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인간은 나름의 잠재성이 있다. 어디서 언제 태어났든지 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립, 사회 정의, 빈곤, 지속개발 등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으

로서의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켜나갈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인간 복지 와 가난, 비고용, 불평등과 같은 개발의 중요한 변수들이 인간 잠재성 실현과 자립, 사회 정의 실현, 지속 개발을 위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개발교육의 필요성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교과가 지리 교육이다. 지리는 자연, 인문환경에 대한 이해와 다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이를 통한 지구적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는 교과로서 세계시민성에서 요구되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에 대한 탐구적 모색은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개발교육의 핵심교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Machon and Walkington(2000)은 Table 3에서와 같이 시민성 교육과 지리 교육이 공유하고 있는 주요 가치, 개념,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3. Values, concepts and skills shared by citizenship and geography education.**  
 세계시민교육과 지리교육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개념, 기능 영역.

Values	Concepts	Skills
Social/Economic Justice	Interdependence	Critical thinking
Sense of place	Sustainable development	Decision-making
Community partnership	Place	Reflective thinking
Regarding/Toleration	Scale	Rethinking
Diversity	Cultural diversity	Communication

주요 개념으로는 문화 다양성, 지속가능개발, 상호 의존성 등이, 주요 기능으로는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반성적 사고, 재고, 의사소통, 주요 가치 영역으로는 정의, 공동체 의식, 다양성 존중, 배려와 관용 등이 지리와 개발교육이 공유하고 있는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은 모두 개발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기능, 주요 학습 영역이기도 한다. 개발교육을 통해서 지리교육이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발교육에서는 세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발협력을 단순한 원조가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평등의 실현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정심과 불평등 의식을 길러줄 수 있다. 그런데 지리는 자연 환경 및 인문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학생들에게 다른 사회와 그 지역의 문화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자연 환경의 다양성 만큼이나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게 하고 지구적 상호 의존성을 촉진하여 동정심이나 불평등 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환경, 개발 및 사회에 관한 이슈를 분석해 내고 학생들에게 비판적으로 세계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게 한다(Binns, 2002, 272).

또한 지리 교육은 국제적, 세계적 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지구 사회에서 그들의 삶을 준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정보화된 인교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 및 개발이슈, 세계적 상호의존성과 사회 정의와 같은 내용들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해 가는 중요한 지식 및 이해 형성 내용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을 정보화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리는 인권, 책임감, 정의, 공정성에 대한 탐구와 의사소통 기능, 책임감 있는 행동과 참여의 기능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 의존성, 다른 지역들과의 상호관련성과 협동에 대한 학습은 앞으로 지리교육에서 반영해야 할 시대적 요청이다. 과거에는 장소에 대한 지식, 자연 과학 및 사회 과학 관련 지식들이 지리를 특징지었다면 이제는 장소에 대한 장소감,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환경에 대한 감수성, 지리적 탐구 기능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지구적 시스템과 지구적 패턴, 세계화의 과정과 영향 그리고 개인의 책임감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 필요한 것이다.

### 3. 선진 공여국의 개발교육 추이와 현황

다음에서는 우리보다 일찍이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개발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오늘날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GNI의 0.7%를 ODA로 사용할 것에 대한 유엔의 권고를 1974년에 이미 달성하였으며, 외국부에 따르면 2004년에는 58.7백만 유로를 개발교육에 사용할 만큼 유럽 내에서 개발교육에 재정적인 면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80% 이상

이 ODA를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데 동의하고 있을 만큼 국민 대다수가 네덜란드의 개발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교육과 관련하여 네덜란드만의 특징을 몇 가지 꼽자면 우선 개발교육과 관련하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과, 그 주 실행기관으로서 개발교육 국가위원회인 NCDO(National Committee for Development Education)는 유럽 내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연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네덜란드에서 개발교육과 인지 제고는 정부의 책임으로, 정책 및 지원 결정과 관련하여 개발 정책 및 교육 정책에 걸쳐있지만 '개발협력'과 '개발교육'에 관한 정보 지원에서는 그 구분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네덜란드 외교정책상 정부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중요시 하던 전통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여러 정부 기관이 네덜란드 국민의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개발교육을 지원해왔던 전통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North-South Center of the Council of Europe, 2003, 54). 마지막으로 개발교육과 관련한 학습의 기회는 각기 다른 교육 시스템 속에서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즉 개발교육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관에 의해 실행되고 있으며, 특별히 지리, 역사, 경제 및 사회 이슈와 관련한 과목을 통해 폭넓게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재 새 교육 과정 중 '시민성' 영역과 같이 새로운 분야까지 개발교육이 확장될 예정이라고 한다(North-South Center of the Council of Europe, 2008a, 39).

### (1)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개발교육

네덜란드의 교육 시스템은 자유롭고 분권화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즉 교육부의 집권화된 지침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 각 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초등과정에서 역시 학교와 선생님에게 많은 자율권이 주어진 가운데, '네덜란드가 다문화 사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권고가 여러 교육과정 속에 다양한 가치들이 개발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sup>11)</sup> 또한 초등학교에서 '인류와 세계의 기초(Orientation to Man and the World)'를 하나의 영역

으로 가르쳐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역사나 지리와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행해지고 있다. 특히 지리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장 세계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개발교육이 지리 가이드라인에 반영되고 있으며, 역사 가이드라인 또한 환경과 관련하여 사회 학습 가이드라인에 세계적 시각을 반영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초등과정에 비해 보다 심도 깊게 일상생활과 글로벌 이슈들을 연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발교육은 지리, 역사, 경제, 사회/시민 교육 및 과학 과목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이중 시민/사회 교육은 중등교육과정에서도 보다 상위 학급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유럽적 시각 및 국제 영역이 보다 강조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개발이 네덜란드에서의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며 반드시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바라봐야 하는 문제임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중등교육과정에서 대다수의 교사들이 개인적인 동기부여로 인해 개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 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과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이고 세계적인 시각을 양성하는데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2) 개발 NGO 기관을 통한 개발교육

개발 NGO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교육은 네덜란드 사회에서 개발 NGO들 스스로가 그렇듯이 사회 깊숙이 뿌리 박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네덜란드 국민들의 개발협력에 대한 폭넓은 지지는 국제 연대에 대한 국민적, 정치적 지원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소와 결합할 수 있는 NGO들의 노력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개발협력에 있어 개발 NGO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개발 NGO들의 개발교육은 질적, 영향력, 범위, 다른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환경, 다문화, 개발, 평화와 같은 다른 관점들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 등 그 우수성으로 유럽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은 개발교육에 있어서도 권리에 기반을 둔 교육에 대한 옹호활동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리고 더 나아가 자체적인 개발교육뿐 아니라 개발 NGO차원에서 정규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발교육에도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에 맞춰 선생님과 학생들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개발 NGO들의 활동 흐름을 살펴보면, 과거 개발교육 및 상호의존적인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참여에 대한 장기간의 학습에서 점차 인지 제고를 위한 대규모 캠페인 활동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네덜란드에서 개발교육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관에 의해 뿌리깊이 전개되어왔다는 점, 또한 정규교육과정에서 세계적 시각 함양을 위한 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 변화된 흐름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주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 2) 핀란드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핀란드 또한 정부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해 70%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 연대 및 핀란드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에 대한 인지도를 비롯하여 핀란드 정부의 ODA 사용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North-South Center of the Council of Europe, 2008b, 79).

현재 핀란드에서 개발교육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행되는 가운데, 개발교육의 중심에 있는 핀란드 외교부와 개발 NGO의 공헌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외교부는 국제 사회에 윤리적 개입을 근거로 한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 주도권을 강화시킨다는 대명제 아래 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인지 제고를 목적으로 개발교육 및 개발 의식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개발 NGO들도 핀란드 국민들이 세계화 시대에 상호연관성과 연대와 관련하여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원칙 아래 개발교육 및 국민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핀란드에서의 개발교육은 개발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등에 기반을 두고 지난 몇 십년간 개발 NGO 및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그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에 대한 지원, 조정 및 재정조달은 정부의 몫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있어왔다(North-

South Center of the Council of Europe, 2008b, 9). 현재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예전 개발교육이 소수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일종의 시민들의 권리로서 모든 시민들이 개발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 (1) 핀란드 외교부의 개발교육 정책

핀란드 외교부 내에서도 국제개발협력부서, 그중에서도 정보·문화부가 개발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보·문화부에서는 개발교육 및 개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교수자를 위한 교재 개발, 교수 세미나 및 캠페인, 공공행사 등을 조직하는 일을 비롯하여 시청각 자료를 구비하여 무상으로 학교에 대여, 개발교육과 관련한 웹사이트(<http://global.finland.fi>) 관리, 관련 잡지 발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개발 NGO들의 정보 제공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04년 정보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면, 정부 정보활동에 1.45백만 유로를, 개발교육 및 정보에 대한 개발 NGO들에 대해서는 1.5백만 유로를 집행하였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2004년에는 핀란드 정부의 '개발정책에 대한 결의'에서 개발교육을 보다 확대할 것에 대한 결정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North-South Center of the Council of Europe, 2008b, 80).

개발정책과 개발협력은 핀란드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핀란드 시민들은 개발도상국과 개발 이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시민들 스스로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 (2) 정규교육과정에서의 개발교육

핀란드도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개발교육 시각을 국가 교육과정에 녹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 인권, 다문화주의, 지속가능성과 같은 가치들이 채택되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발교육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별 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유치원

교육에서는 환경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등교육과정에서는 핀란드 사람으로서 유럽 및 핀란드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 및 핀란드와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에서 개발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주요 사례로 외교부와 국가교육위원회<sup>12)</sup>의 공동 프로젝트인 세계도전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개발교육과 개발인지 제고 지원 및 교사, 학생, 다른 교육 기관들에 국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협력, 국제 환경, 이주, MDGs, 기타 개발이슈들을 주제로 1998년부터<sup>13)</sup> 진행되고 있는데(North-South center of the council of Europe, 2008b, 60), 프로그램의 주 대상은 교사로 교사를 교육·훈련시킴으로써 개발교육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통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3) 개발 NGO 기관을 통한 개발교육

다른 유럽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핀란드에서의 개발교육은 개발 NGO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히 핀란드에서의 개발교육은 국제 사회 참여에 대한 핀란드의 전통적인 역사와 함께 선교사, 민속 학교들의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직까지 개발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비교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1970년대 이후 개발 NGO들은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있었으나, 개발 NGO들이 개발교육 또는 세계 교육을 인지 제고 캠페인 내지는 모금의 한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어 개발 NGO 사회에서 개발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핀란드내에서 성공적인 개발교육 협력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KEPA(Service Center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의 주도아래 '지구를 당신의 손안에' 주제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개발교육네트워킹 사업이 있다. 이것은 KEPA 및 그 회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홈페이지를 구축(www.kansainvalisyyskasvatus.net)하여 잠재적 파트너 및 모금 기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핀란드 개발 NGO들이 개발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세계화와 같은 주제 및 개발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자문,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3) 일본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의 높은 ODA 기여도를 고려해 볼 때 다른 OECD DAC 국가들에 비해 늦게 개발교육에 관심을 가진 편에 속한다. 그동안 일본 문부과학성은 개발이슈에 대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학습 자료를 제공받을 때 자칫 일본의 ODA 및 정부활동에 대한 선전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중립적 교육이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개발이슈가 정치적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우려로 개발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왔다(OECD development center, 2003, 147).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일본의 대외 원조에 대한 낮은 국민 지지도 및 전체 ODA 예산 중 개발협력에 대한 정보 및 개발교육에 대한 낮은 지출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개발교육에 소홀한 편이었음을 말해준다.

### (1) 정규교육과정내 총합학습 시간

일본의 정규교육과정에서는 1980년대 일본 사회 내에서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교육이 이에 못 따라온다는 판단 하에 1984년 교육개혁 국가위원회에 설립되면서 국제화 정보화 사회에 새로운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1989년 일본 국가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이 강조되었으나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의 ODA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1990년대 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국제 회의가 연달아 개최되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2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 총합학습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문부성에 의해 제공되던 교육과정에서 학교에 재량권을 주어 국제이해, 정보, 환경, 복지 및 건강 등 여러 교과에 걸친 주제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모든 공립 초등학교 및 중등

학교는 반드시 통합학습 시간을 설정하여, 초등학교는 매년 105~110시간(일주일에 약 3시간), 중등학교에서는 70~130시간(일주일에 약 2~3시간)을 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일방적인 강의 전달이 아닌 상호 연관된 이슈들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록 일주일에 2~3시간밖에 안되는 시간이지만 통합학습(integrated study)은 일본 교육과정 역사상 처음으로 학습 주제와 내용을 정해진 교과서나 참고 서적이 없이 개별학교와 교사들이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과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sup>14)</sup> 특히나 이것은 개발교육 및 세계교육을 정규학습 시스템 안에서 실행하기에 좋은 기회가 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틀 안에서 얼마만큼의 개발교육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또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일본정부의 개발교육 노력

이밖에도 정부차원에서 일본은 개발교육과 관련하여 외무부의 홈페이지<sup>15)</sup>를 통해 '우리 세상을 알리자(Let's Explore Our World)'라는 주제로 개발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제협력 프라자 홈페이지<sup>16)</sup>에서 ODA TV, 국제협력 신문, ODA 자료실, ODA 교재 등 다양한 학습 교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외무성은 2007년 3월부터 ODA 이메일 잡지 발행 및 신문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일본의 국제협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라는 주제로 다양한 장소에서 현재 일본의 ODA와 관련 국제협력 상황에 대한 간담회<sup>17)</sup>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일본의 정부 원조기관인 JICA(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단)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을시 ODA 및 국제협력과 관련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JICA 글로벌 프라자를 개관하여 방문자가 개도국의 상황 및 삶, 특별히 인간안보, 환경, 아프리카, 사막화 방지, 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사진, 영상, 그리고 전시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도록 NGOs, 언론매체, 교육기관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방문객수가 43,000명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발교육과는 다르게 정부 주도로 ODA 및 정부 대외 원조 활동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지 제고를 꾀한다는 점에서 OECD가 공여국 사이에서 개발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지 제고 활동을 평가할 시 제시한 세 가지 구분 중 개발정보 및 정보교환, 옹호활동 및 캠페인, 개발과 세계 교육 중 개발정보 및 정보교환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OECD Development Center, 2008, 7). 또한 대부분의 활동이 지속성을 갖기보다 단발적인 참여내지는 일회성 교육에 그친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 아래 시민 사회와의 협력을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발교육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 국내 개발교육 현황 및 개발교육 사례

### 1) 국내 개발교육 현황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발교육에 대한 역사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만큼이나 짧은 편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아태교육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제이해교육은 최근 들어 다문화교육, 환경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으로 점차 세분화 되면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활동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사회가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인종,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는 가운데 다문화 교육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환경교육은 21세기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는 등 지속가능개발교육과 함께 점차 중시되고 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다방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면서 그 결과물로서 초·중·고생 수준별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등의 노력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 이슈를 다루는 개발교육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개발 NGO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인지 제고 측면에서 개발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교육 흐름을 보면,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사회에서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노력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개발 NGO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 정규교육과정에서의 개발교육

우리 정부는 ODA에 대한 차세대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초·중·고 교과과정에 국제이해교육 및 개발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확대 수록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하였으며, 2006년 교육부에서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 2종을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실적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개발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Table 4와 같다. 개발교육 관련 내용 구성은 앞에서 개발교육 내용 영역으로 제시하였던 세계화, 상호의존성, 지구촌 다양성, 지속가능개발, 개발이슈, 국제사회의 노력을 내용으로 하였다.

Table 4. Contents of development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초·중·고등학교에서 개발 교육의 내용.

School	Class	Subject	Contents in curriculum	Field of development education
Elementary	5	Moral education	The relationship of nation · ethnic · global community	Interdependence
Elementary	6	Moral education	The relationship of nation · ethnic · global community	Interdependence
Elementary	6	Social studies	Nature and Culture of world nations	Diversity
Elementary	5	Physical education	Traditional dances of foreign nations	Diversity
Elementary	3	Music	Traditional songs of Asia nations	Diversity
Elementary	4	Music	Traditional songs of Europe nations	Diversity
Elementary	5	Music	Traditional songs of America nations	Diversity
Elementary	6	Music	Traditional songs of Africa nations	Diversity
Elementary	5, 6	Art	Appreciation of world arts	Diversity
Middle	1	Social studies	About world Diverse climate regions and residents lives Diverse topography regions and residents lives Diverse cultures in the world Population change and population issues Urban development and urban issues	Globalization Diversity Development issue
Middle	3	Moral education	world peace and living together	Interdependence
Middle	3	Social studies	Resource development and using Industry activity and regional change Environmental issues in the world Korea in the world	Development issue Interdependence
Middle	3	Physical education	Expression activities (foreign traditional dances, classic ballets) Leisure activities in the world	Diversity Diversity

School	Class	Subject	Contents in curriculum	Field of development education
Middle	1, 2, 3	Art	Appreciation of arts in the world	Diversity
Middle	1	Music	Singing and appreciating of Asian traditional songs	Diversity
Middle	2	Music	Singing and appreciating of European traditional songs	Diversity
Middle	3	Music	Singing and appreciating of American traditional songs	Diversity
Middle	1, 2, 3	Environment	Participation in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High	1	Social studies	Physical environment and human lifes Diversity of cultural landscapes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Diversity Development issue
High	1	Domestic science	Consumer living cultures in the world	Diversity
High	1	Physical education	Expression activities (foreign traditional dances, classic ballets) Leisure activities in the world	Diversity Diversity
High	1	Art	Comparing with beauty values of diverse cultures	Diversity
High	1	Art	Appreciation of arts in the world	Diversity
High	1	Music	Singing the songs of foreign countries	Diversity
High	2, 3	Sports	Festivals of sports	Diversity
High	2, 3	World geography	Globalization and understanding of regions Travels to the world Physical landscapes in the world Global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Population and urban in the globalization	Globalization
High	2, 3	Economic geography	World economy environment	Globalization
High	2, 3	World history	Formation of world-wide trade network Changes and tasks of the world	Globalization
High	2, 3	Economic	World market and Korean economy	Interdependence
High	2, 3	Ethics and thoughts	Globalization and global citizenship	Globalization
High	2, 3	Oriental cooking	Oriental foods	Diversity
High	2, 3	Western cooking	Western foods	Diversity
High	2, 3	Practical skill of Music	Musics of diverse cultural areas	Diversity
High	2, 3	Music and Society	World and music	Diversity
High	2, 3	Globalization and Management	Understanding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Globalization
High	2, 3	Environment	Global environmental issues and solution method	Sustainable development

Resource: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2007



국내 정규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개발교육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에서의 개발교육은 주로 지구촌 문화 다양성과 상호 의존성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학교에서도 지구촌 문화 다양성과 상호 의존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세계 평화와 인류에 실현의 필요성, 개발이슈 내용이 일부 학습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지구촌 문화 다양성, 세계화, 지구촌 상호 의존성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지구촌 문화 다양성 영역 위주의 교육 내용 구성이 특징적이다. 그 외 사회과에서 특히 지리 교육 영역에서 개발이슈와 상호 의존성 교육 내용이 포함되었다. 즉,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된 개발교육의 특징은 지구촌 문화 다양성 교육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국제 사회가 안고 있는 개발 협력의 이슈들에 대한 교육 내용 구성은 양적으로나 이슈의 다양성면에서 아주 미흡함을 보여준다. 개발이슈 영역에서는 인구, 도시, 자원, 환경 문제에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7차 교육과정 중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화'에 대한 인식 및 서술내용을 분석해 놓은 연구에서 보더라도(Roh, 2004, 221), 개발교육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세계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즉 현재 사회과 교과서 속의 세계화는 시대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주로 경제적인 발전에만

치우쳐 서술되고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기술과 지식을 획득하여 세계화에 대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을 갖도록 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세계화를 기술하는 내용의 비중이 긍정적인 면에 치우쳐 있어, 부정적인 측면은 아주 적게 서술되거나, 어떤 교과서에서는 아예 언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세 번째로는 세계화에 대한 설명이 단순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의 교육을 역설하고 있다. 왜 우리가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이고도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기에 앞으로 더욱 심화된 세계화 시대에 살게 될 청소년들이 시야를 넓혀 사고할 수 있게 하는데 부족하다 할 수 있다.

## 2) 국내 개발교육 사례

### (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의 참여 확대, 한국 원조시스템의 질적 향상, 한국 원조모델 개발을 목표로 ODA 인지 제고, 대중 참여 확대를 위해 Table 5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Table 5. KOICA programs of strengthening effect on ODA information (KOICA, 2006).  
ODA 인지 강화를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프로그램.

Strengthening of ODA recognition	Extension of public attention
1. Strengthening of press report - Interview with KOICA president - Special report about KOICA - Practical use of social public opinion leaders	1. Holding events for a popular participation - Managements evaluation and public information - Strengthening partnership with NGOs - Practical use of many events
2. Strengthening ODA education - Increasing the contents of ODA information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 Special teaching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colleges.	2. Holding events for young people - Writing contest of studen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 Essay contests in college students - Programs of student coordinators
3. Practical using and making of ODA information - Making brochures and reports - Making 'Together' for young people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진행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면, 우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국제협력단의 활동 및 여러 봉사단의 활동 사례 제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해 더 많은 내용이 게재 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제개발협력 특강, 국제개발협력 글짓기 대회 개최, 한국국제협력단 견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개발교육과 가장 관계가 깊은 국제개발협력 특강은 한국국제협력단 임직원들의 직접 방문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교육 내용은 크게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국제협력단의 소개(분야별, 사업형태별, 우수사업사례),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일회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OECD DCA 회원국의 NGO들 사이에서 정부의 개발교육에 제기되는 비판처럼 교육내용이 정부 사업을 홍보하는데 치우쳐 있다는 데서 실효성이 낮다.

그러나 Table 6에서 처럼 2009년부터 ODA 및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인지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대학교내 교양 또는 전공기초 과목으로 국제개발협력 과정을 개설하거나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을 공모하여 지원할 계획을 갖

고 있어 앞으로 개발교육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2) 개발 NGO 기관에서의 개발교육 노력

국내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면서 개발 NGO 사이에서 개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차원에서 ODA 및 국제개발협력 이슈, 그리고 MDGs와 같은 국제 사회의 노력, 한국 정부의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인지 제고 측면에서 개발교육이 실행되는 것과는 달리 개발 NGO에서 행해지고 있는 개발교육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참여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Table 7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개발 NGO들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대부분 세계시민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빈곤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와 같은 개발 이슈 들을 교육하여 나눔의 실천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가치 및 태도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개발교육에 관심을 갖는 단체가 늘어나면서 개발교육의 방향 및 내용에 대한 개발 NGO들 사이에서의 합의의 필요성과 환경, 인권, 다문화 교육 등에 비해 아직까지 교육 자료가 부족한 개발교육으로 인해 단체들 간의 정보공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면서 2009년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이의 조정 및 확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교사

Table 6. 2009 Programs strengthening development education recognition of KOICA.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발교육 인지 강화를 위한 2009 프로그램.

Programs	Business contents	Support method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	Making contents and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human resources	Consignment by 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Cooperation)
Support projects of private organizations	Support projects of private organizations for development education	Advertisement and examination
Support opening of development education lectures for colleges	Support opening of development education lectures for colleges	Advertisement and examination
Training of experts of development Education	Support the education/programs for training the development education experts Seminar one time one month	Advertisement and examination

Resource: Lee(2009, 88)

Table 7. Korea NGOs' development education for studen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february/2009 now). 초·중·고등학교에서 NGO의 개발교육 현황.

	Goodneighbors ( <a href="http://www.f5.or.kr/f5/global/main.asp">http://www.f5.or.kr/f5/global/main.asp</a> )	Worldvision ( <a href="http://www.worldvision.or.kr/html/involved/march.asp">http://www.worldvision.or.kr/html/involved/march.asp</a> )	THE Korean Committee for UNICEF ( <a href="http://www.sharingeducation.net/">http://www.sharingeducation.net/</a> )	KFHI ( <a href="http://www.kfhi.or.kr/edu/">http://www.kfhi.or.kr/edu/</a> )
Program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ne Hear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lobal citizen school: March outside Map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Nakerna(I'm being larger I'm sharing mor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Learning and sharing
Objectives	Practicing sharing through respect, sympathy and cooperation as a global citizen	Educating the global citizen practicing the action plan for better global village	Educating the global citizen practicing sharing for social justice	Practicing sharing for starving neighborhood
Students	Elementary school	Middle, high school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Method	By visiting schools	Camp	Teaching by teachers trained in Unicef	By visiting schools
Contents	Poverty of global village MDGs Education of development issues	Education of development issues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on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Education of development issues
Beginning	year 2008	year 2007	year 2004	year 2003
Others	1. Peace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lubs 2. Training lecturers 3. Making program for training lecturers of development education	1. Operation of teacher academy 2. Development teaching materials about development issues	1. The operation of the demonstrative classroom with Seoul Office of Education <sup>18)</sup> 2. The operation of 'Nakerna' program homepage 3. Training elementary teachers 4. Retention of many teaching materials	1. Teaching the students visiting schools 2. Teaching children

\* Excepted the analysis of UNESCO Korean commission, 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Korean YMCA because they are just centers for teachers' training

연수 및 학생 지도에 적극 활용 예정이다.  
 하지만 이제 막 개발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개발 NGO들은 짧은 역사만큼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갖고 있다. 우선 교육의 목적 및 철학에 대한 깊은 고민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그대로 단체의 개발교육 활동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서도 드러나는데, 실제 단체가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 개발교육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과 내용을 갖고 교육이 진행되

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직까지는 홈페이지에 충분히 소개되지 않고 있다. 둘째, 교육의 목적은 세계시민교육이지만 대부분의 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육이 결국은 모금활동과 연관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동안 개도국 내에서의 사업을 위해 모금위주로 활동을 하던 개발 NGO 단체들이 점차 모금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교육부분을 강화하기 시작한 경우가 많아 순수하게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

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 인권, 환경, 다문화 교육 등 인접교육에 비해 시작이 늦은 만큼 교육 내용자료가 부족하여 교육과 모금이 연계된 현재 상황에서는 교육내용 및 자료를 단체사이에서 공개하거나 교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나 아직까지 공론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 NGO에서 실행하는 개발교육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교육 목적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것은 개발 NGO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도 개발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 5. 국내외 개발교육 연구 결과 및 국내 개발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국내에서 개발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이제 막 제기되어 교육이 시작되고 있는데 비해 OECD DAC 회원국들, 특별히 유럽 선진 공여국 사이에서는 오랜 개발협력의 역사만큼이나 개발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 배경에는 크게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가 선언되면서 이의 달성을 위해 개발협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자금 확대에 대한 자국 국민들의 적극적 이해와 지지, 그리고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 특별히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발교육은 개발 NGO 기관 및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음에서는 국내의 개발교육의 실재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개발교육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개발교육의 용어 사용

먼저, 개발교육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개발교육에 대한 용어는 개발교육, 세계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각국 또

는 각 기관의 상황 및 이해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 다만 유럽에서는 유럽의회를 중심으로 세계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세계교육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세계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교육 내용에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그 교육의 방법 상에서 그리고 내용면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개발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정된 주제 및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 속에서의 상호의존성, 연대, 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등의 다양한 배경 속에서 글로벌이슈나 개발이슈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 캠페인, 정규교육과정 속에서의 세계적 시각 반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OECD에서는 개발에 대한 인지도 활동을 3가지 접근 형태로 분류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였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각국에서 진행되는 개발교육을 설명하고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에서는 개발교육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개발 NGO 및 한국국제협력단에서도 그 용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개발 NGO들은 현재 개발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과 관련된 빈곤, 기아와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는 유럽에서 세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각 기관에서 이해하고 있는 교육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상황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되 유럽의회처럼 국내에서 개발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 사이에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 합의를 하고 그 틀 속에서 교육을 진행할 때 보다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 개발교육 논의의 초기단계에 있어 다양하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OECD의 접근 기준을 이용하여 개발교육 활동을 설명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개발교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2) 개발교육에 대한 접근 방법

접근 방법 면에 있어서,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교육은 개발협력이라는 틀을 벗어나 다문화 사회의 출현, 이민자 유입 등 각국의 상황에 맞게 강조점을 달리하며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유럽 국가는 '연대' 의식이 전통적으로 강해 이를 개발교육에서 중시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학생들에게 그에 걸맞은 관용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여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핀란드와 네덜란드 사례에서 등장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개발교육에서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세계화 시대 속에서 세계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모든 학생들이 개발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및 이주 노동을 배경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 및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개발교육은 이러한 흐름과는 동떨어져 산발적으로 논의되고 진행되는 실정이다. 국내 개발 NGO 단체들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제가 개도국의 빈곤으로 한정되어 있다.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의 다양한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보다 국내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개발교육의 내용 속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존중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네덜란드와 핀란드에서 취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볼만 하다. 앞으로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이는 일방적으로 개발 NGO들의 이슈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세계화가 심화된 사회 속에서 살게 될 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 3) 개발교육의 교육 내용

교육 내용 면에서 보면, 개발교육이 단순히 하나의 주제에 대한 교육이 아닌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학습과정으로 이해되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 지속가능성, 관용, 다문화, 연대, 협력, 평등과 같은 가치를 청소년 시기부터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의 Oxfam을 중심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을 비롯하여 핀란드의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이 중요한 학습가치로 포함되면서, 개발교육 내에서 세계시민의식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교육에서 가치 중심의 교육보다는 주제 중심의 주입식교육이 이루어져 왔기에,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발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개발 NGO들도 가치 중심의 교육보다는 주제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자체가 선진 공여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 지속가능성, 관용, 다문화, 연대 등에 대한 교육을 최근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교육에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개발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의 소양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권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없이 가르친다면 이 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4) 지리교육에서의 개발교육

개발교육은 세계시민의식의 함양, 국제이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장소에 대한 관심과 이해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지리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와 많은 공유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리는 어떤 다른 교과보다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장소들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관심, 이해 향상에 기여한 교과이기에 앞으로도 개발이슈와 멀리 떨어진 다른 장소들에 대한 학습에서 더 큰 기여를 기대해 볼 수 있다(Binns, 1996, 303).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대로 지리 교육에서의 개발교육을 위해서는 앞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용어 사용에 있어서, 아직 국내 지리 교육에서 개발교육의 용어 사용은 거의 없었다.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과 환경교육으로 이루어져왔다. 앞으로 개발교육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개발교육 내용 구성면에서는, 개발교육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세계화, 지구촌다양성, 개발이슈 및 국제사회의 노력, 지속가능개발 영역의 조화로운 구성과 개발이슈의 주제영역에서도 빈곤, 양성평등, 환경, 자연재해, 물부족, 식량부족, 분쟁 등의 개발이슈관련 균형적인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이슈 주제 교육의 대상 지역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일부 대륙에 한정하지 말고 개발의 의미를 잘 살려서 세계 여러 지역이 고루 포함될 수 있는 대상 사례 지역 구성이 필요하다. 개발이슈 교육 대상 지역을 아프리카 등 일부 지역에 한정함으로써 아프리카는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 지역이자 빈곤 지역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발교육 방법면에서는, 개발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개인적 차원에서 내면적 가치 함양과 비판적 사고력이다. 내면적 가치 함양을 위해서는 지식 전달의 수업 방법보다는 입장되어보기의 역할놀이, 현장의 시뮬레이션, 기타 시각 자료를 활용한 탐구적 문제해결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방법 구안이 필요하다.

다른 NGO 기관들과의 연계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과정에서의 개발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과는 달리 빈곤지역에 대한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에서 개발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리하여 한국국제협력단과 여러 NGO 기관들에서는 개발협력 인지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 연수 및 학생 자료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아태교육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도 국제이해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차원에서 교사연수와 협동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지리 수업을 진행

한다면 훨씬 생생한 그리고 현장감있는 개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개발은 사람들의 삶의 질 제고의 과정이다. 주어진 환경에서 공간과 장소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탐색하고, 세계적 시각에서 자원, 문화, 사람들의 교류 탐색, 환경에 따른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주는 지리 교육은 인간이 지닌 인권, 평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주고자 하는 개발교육의 중요한 교육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개발교육에서의 개발이슈, 지구촌 문화 다양성 교육, 지속가능개발교육, 세계화는 학생들에게 지구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는 지리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시민 교육 영역이기 때문에 지리 교육에서 중요한 학습 영역이 된다. 특히 오늘날 세계시민성에 대한 강조와 지속가능개발, 개발이슈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강화는 지리 교육에서의 개발교육의 위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6. 결론

상호의존의 국제 사회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 개발교육이다. 개발교육은 세계가 상호의존 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빈곤, 영양부족, 질병, 기아, 자연 재해 등의 모든 문제들을 단순히 해당 국가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지구촌의 문제이며 이의 해결이 없이는 지구촌 전체의 행복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196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등장한 교육이었다.

개발교육은 자유, 평등, 정의, 연민, 존중, 나눔과 같은 보편적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이슈를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 및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시민은 개인과 국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관점에서 사고할 줄 알며 나와 다른 문화, 인종, 민족, 종교를 존중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 지구적, 인류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개발교육은 중요한 교육 영역이다. 특히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정보화된 인간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리 교육에서 개발 교육은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시대적 요청으로서의 개발교육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국내의 교육 현황 및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개발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여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틀 안에서 지리교육에서의 개발교육이 논의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국내외 개발교육의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해 개발교육의 용어 사용, 접근 방법, 교육 내용, 학교 교육에서의 연계 방향, 지리 교육에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용어사용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개발교육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세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 내용은 개발과 관련된 빈곤, 기아와 같은 부분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개발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점 도출에 의한 보다 명확한 개발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리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출현, 이민자 유입 등 각국의 상황에 맞게 강조점을 달리하여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국가는 '연대' 의식이 강하여 국제개발협력교육에서 이를 중시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학생들에게 걸맞은 관용, 다양성 존중을 강조하면서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산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로 개도국의 빈곤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교육의 내용 속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 지구촌 다양성, 상호의존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존중의 태도와 가치 함양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더욱 세계화가 심화된 사회 속에서 살게 될 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개발교육은 단순히 하나의 주제가 아닌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글로벌이슈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 지속가능성, 관용, 다문화, 연대, 협력, 평등과 같은 가치를 청소년 시기부터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교육과정 분석에서 제기되었던 지구촌 문화 다양성 위주의 내용 위주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가 안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 해결 방법 찾기, 국제 사회의 노력 등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지리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개발교육 관련 내용 구성에서도 개발이슈 영역의 균형적인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의 연계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교육은 주로 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과 NGO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변화 앞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한 다문화 교육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화,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커다란 교육 방향 아래서 개발교육의 내용 구성으로 개발교육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그간 국제개발협력교육을 실시해 온 NGO 단체들과 공동으로 국제개발협력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과목의 특성상 가장 개발교육을 잘 실현해낼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실시할 수 있는 교과로서의 지리는 그간 그리고 앞으로도 개발교육의 핵심교과로 그 역할은 사회적으로 기대가 크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 교육 내용 구성, 교육 방법에 대한 더 진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발이슈 관련 교육이 앞으로 지리 교육에서 어떻게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주

- 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1997. 8부터 전국단위의 국제이해교육 교원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제30차 유네스코 총회에

서 아태교육원 설립결의문이 채택되면서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 간 조약에 준하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아태교육원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아태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unescoapceiu.org> 참조)

- 2) DAC는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이나, OECD 국가라 하더라도 일정조건을 갖추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2009년 1월 현재 총 22개 회원국 및 EU 집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DAC에 가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신흥 공여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전환되어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3) OECD 문건에 의하면, 개발교육 정책 및 관련 예산이 시민 사회의 요구와 로버로 생겨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 4) OECD, 2007, Global Education, Public Awareness-Raising and Campaigning on Development Issues: An Overview of Evaluation Practice and Policy, Background paper for informal Experts' Workshop on Development Communication, Advocacy and Education: Tips and Tools for improving evaluation 참조
- 5) CONCORD의 감독아래 4개의 개발 NGO\_ITECO (Belgium), UCODEP(Italy), TAKSVARKKI(Finland), DEA(United Kingdom)의 컨소시엄으로 운영되고 있다.
- 6) 자세한 사항은 TRIALOG 홈페이지 참조(<http://www.trialog.or.at>)
- 7) 이것은 영국의 DEA(개발교육협회)에서 기관의 이름인 '개발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세계학습'을 사용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 8) <http://www.gene.eu> 참조
- 9) 2004년 11월 CONCORD European Development Education Forum에서 승인되었으며, 유럽 개발 NGOs 사이에서 널리 인용 되고 있음
- 10) <http://www.oxfam.org.uk/education> 참조
- 11) 인용 자료에는 세계교육이라고 되어 있으나 편의상 개발교육으로 명칭 하였으며, 네덜란드에서의 개발교육은 지속가능 개발과 문화간 이해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12) 핀란드에서는 교육부의 공교육 책임아래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3)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은 1989년이나 현재와 같은 형식을 갖춘 것은 1998년부터이다.
- 14) <http://www.dear.or.jp/eng/eng05.html> 참조
- 15) <http://www.mofa.go.jp/policy/oda> 참조
- 16) <http://apic.or.jp/plaza> 참조
- 17) 2007년 2월 현재까지 33회 심포지움 개최, 2007 Japan's ODA White Paper 참조

18) 서울시 교육청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함께 운영한 2008년 시범교실 사업은 완료되었음.

## 참고문헌

- Binns, T., 2002, Teaching and learning about development, in Smith M.(ed.), *Aspects of Teaching Secondary Geography*, Routledge Falmer, NY, 264-286.
- Binns, T., 1996, Geography in development, *Geography*, 80(4), 303-322.
- Council of Europe, 2002, *The Maastricht Global Education Declaration*, Europe-wide Global Education Congress, Netherlands.
- DEA(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2008, *Our Global Future: How can Education Meet the Challenge of Change? - Young People's Experiences of Global Learning*,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London.
- EC(European Community), 2005,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European Community, Brussels.
- GENE(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2003, *National Structures for the Organization, Support and Funding of Development Education*,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London.
-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2005, *Public Opinion Research about ODA*,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Seoul.
-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2007, *The Present Condition and Plan of the Public Information Reinforcement About ODA*,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Seoul.
-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06, *KOICA Annual Report 2006*,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Seoul.
- Lee, S. B., 2009, Status and tasks of civil education for ODA in Korea, *2009 Gwangju International Peace Forum*, International Solidarity



- Committee, 86-91.
- Machon, P. and Walkington, H., 2000, Citizenship: The role of geography?, in Kent, A.(ed.), *Reflective Practice in Geography Teaching*, Paul Champman Publishing, London, 179-191.
- North-South Center of the Council of Europe, 2003, *National Structures for the Organization, Support and Funding of Development Education*, North-South Center of the Council of Europe, Lisbon.
- North-South Center of the Council of Europe, 2008a, *Global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National Report*, North-South Center of the Council of Europe, Lisbon.
- North-South Center of the Council of Europe, 2008b, *Global Education in Finland National Report*, North-South Center of the Council of Europe, Lisbon.
- OECD Development Center, 2003, Public Opinion Research, Global Educ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Reform: In Search of a Virtuous Circle, *Working Paper*, 222, OECD Development Center, Issy-les-Moulineaux.
- OECD Development Center, 2007, *Global Education, Public Awareness-Raising and Campaigning on Development Issues: An Overview of Evaluation Practice and Policy, Background paper for informal Experts' Workshop on Development Communication, Advocacy and Education: Tips and Tools for Improving Evaluation*, OECD Development Center, Issy-les-Moulineaux.
- OECD Development Center, 2008, *Building Public Awareness of Development: Communicators, Educators and Evaluation, Policy Brief*, OECD Development Center, Issy-les-Moulineaux.
- Roh, S. Y., 2004, The analysis of the awareness and descriptions of the 'Globalization' in the middle school textbooks of social studies of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 Evaluation*, 7(1), 221-235.
- Seers, D., 1969, The meaning of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Review*, 11(4), 2-6.
- UNESCO Korean Commission, 2007, *Teachers's Guide Boo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Korean Commission, Seoul.
- <http://www.f5.or.kr/f5/global/main.asp>
- <http://www.worldvision.or.kr/html/involved/march.asp>
- <http://www.sharingedu.net>
- <http://www.kfhi.or.kr/edu/>
- <http://www.unescoapceiu.org>
- <http://www.mofat.go.kr>
- <http://www.concordeurope.org/>
- <http://www.dea.org.uk/>
- <http://www.deeep.org/>
- <http://www.ideaonline.ie/>
- <http://ec.europa.eu/development>
- <http://www.gene.eu/>
- <http://www.coe.int/t/dg4/nscentre/>
- <http://www.oxfam.org.uk/education/>
- <http://www.rorg.no/English/>
- <http://www.trialog.or.at/>
- <http://www.worldbank.org/depweb/>
- 교신 : 김다원, 421-826,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월동 303 까치울중학교(이메일: veritas2@chol.com, 전화: 032-684-3412)
- Correspondence: Dawon Kim, Kachiwool Middle School, Ojeong Gu, Yewul Dong, Bucheon City, Kyeonggi Province, 421-826, Korea (e-mail: veritas2@chol.com, phone: +82-32-684-3412)
- 최초투고일 2010. 2. 7  
수정일 2010. 3. 4  
최종접수일 2010. 4. 6